

석유·가스 등 에너지 시장 1분기 동향 및 전망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1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4
1. 업스트림(Upstream) 산업	4
2. M&A 거래	16
III. 주요 이슈	19

작성 : 책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이진권 (3779-6670)
 ljinguhan@koreaexim.go.kr

< 요약 >

- (에너지 가격 동향) 국제유가는 연초 상승세로 1월 말 연중 최고치를 기록(WTI油, 1.30일 \$97.94/bbl)한 이후 급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 양상을 보이다가 5월 말 현재 90달러 중반대 기록
 - 천연가스 가격은 1월 약세를 보이며 2월 중순 연중 최저치에 근접(3.153달러/mmBTU, 2.15.)한 이후 4월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어 연중 최고치(4.408달러/mmBTU, 4.19.)를 기록, 5월 들어 소폭의 하락세
 - 유연탄 가격은 1월 중순 이후 2월 초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4월말 연중 최저치 기록(86.8달러/톤, 4.29.), 5월 말 톤당 80달러 후반대에서 보합
- (에너지 가격 전망) 미 에너지 정보청(EIA)은 2012년 평균유가(WTI油)를 배럴당 94.12달러, 2013년 유가는 93.17달러로 전망
 - 미국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은 2012년 2.83달러, 2013년은 3.91달러로 전망
-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 동향) 미국 타이트 오일 생산 증가와 송유관 확장으로 인해 저가의 내륙 지방 원유가 멕시코만 정유설비로 운송되며 한때 정제설비가 폐쇄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던 동부연안 정제 마진 개선 전망
 - EIA는 타이트 오일이 미국 원유 생산 증가를 견인하여 2014년 미국 원유 생산량이 1988년 이후 최고치인 792만 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Seaway 송유관 추가 확장, Keystone XL 송유관 운영 개시 등 신규 송유관 프로젝트로 WTI유의 멕시코만 수송이 증가할 전망
- (주요이슈 : 아시아 기업의 업스트림 부문 M&A 동향) 2012년 중국 등 아시아 석유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자산 M&A 투자로 인해 아태 지역 기업의 M&A 거래액이 전년대비 약 25% 증가한 854억 달러 기록
 - 2012년 아시아 기업들의 M&A는 주로 LNG, 심해 프로젝트 중심이며 아시아 기업들의 가세로 기업간 M&A 경쟁 격화
 - 2013년에도 아시아 기업들은 자국내 생산자산 노후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자산 M&A 투자에 적극 나설 전망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¹⁾

1. 에너지 가격 동향

- (석유) 연초 가격 상승세로 1월 말 연중 최고치를 기록(WTI유)한 이후 급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 양상을 보이다가 5월 말 현재 90달러 중반대
 - 1월 미 원유재고의 예상 외 감소,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 중동 지정학적 우려 확대, 중국 GDP 성장률 호조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1월말 연중 최고치 기록(WTI유 1.2일 \$93.12/bbl → 1.30일 \$97.94/bbl)
 - 2월 중순 이후 사우디 증산 가능성,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수요 감소 우려,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2.12일 \$97.51/bbl → 3.4일 \$90.12/bbl)
 - 3월 중 유가는 미 경제 지표 호조, 키프로스 구제금융 타결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3.4일 \$90.12/bbl → 3.28일 \$97.23/bbl)
 - 4월 들어 미국 원유 재고량 22년 이래 최대치 기록, 미 고용지표 악화로 유가 급락(4.2일 \$97.19/bbl → 4.17일 \$86.68/bbl), 4월 중순 이후 양적완화 지속 기대감,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5.20일 \$96.71/bbl)
- (천연가스) 1월 가격 약세를 보이며 2월 중순 연중 최저치에 근접한 이후 4월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되며 연중 최고치 기록, 5월 들어 소폭의 하락세
 - 2월 중순 mmBTU당 3.153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재고 감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급등하여 3월 중순 3.872달러로 상승
 - 이후 성수기인 겨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꽃샘추위로 인한 난방용 수요 증가,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둔화 등에 따라 4월말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중 최고치 기록(4.19일 \$4.408/bbl)
- (전력용 유연탄) 1월 중순 이후 2월 초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말 연중 최저치 기록, 5월 말 톤당 80달러 후반대에서 보합

1) www.koreapds.com,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May) 참고

-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2월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2.6일 \$96.5/톤)한 이후 온난한 기후 예보, 중국 수요 둔화 전망 등으로 하락
- 미국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석탄 수요 감소, 공급과잉의 영향 등으로 2월 초 톤당 96.5달러에서 하락세가 지속되어 3월 중순 90달러 선이 붕괴되고, 4월 말 연중 최저치 기록(4.29일 \$86.8/톤)
- (우라늄) 1월 말 연중 최고치(44.0달러/lb, 1.31.) 기록 이후 수요 감소 우려 확대에 하락세를 지속하며 4월 중순 연중 최저치 기록(40.15달러/lb, 4.22.)

<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10	2011	2012				2013			
				1/4	2/4	3/4	4/4	1/4	4월	연중 최고	연중 최저
유가 (\$/배럴)	WTI	91.4	98.83	103.02	84.96	86.25	91.82	97.23	93.46	97.94 (1.30.)	86.68 (4.17.)
	Dubai	91.4	104.89	120.38	92.89	106.91	107.81	107.1	101.3	113.62 (2.13.)	96.71 (4.18.)
천연가스 (\$/백만BTU*)		4.4	3.0	2.1	2.8	3.692	3.351	4.024	4.343	4.408 (4.19.)	3.113 (1.9.)
유연탄(전력용) (\$/ton)		136.5	111.1	110.05	90.7	85.5	93.75	87.05	87.0	96.5 (2.6.)	86.8 (4.29.)
우라늄 (\$/lb)		62.5	51.8	50.8	50.8	42.5	43.15	42.25	40.5	44.0 (1.31.)	40.15 (4.22.)

주) 유가는 WTI油 선물 익월물(NYMEX)/브렌트油 선물 익월물(ICE)/두바이油 현물가격, 천연가스 선물 익월물(NYMEX), 유연탄은 뉴캐슬(ICE), 우라늄은 NYMEX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2. 에너지 가격 전망

- (유가) 미 에너지 정보청(EIA)은 2012년 평균유가(WTI油)를 배럴당 94.12달러, 2013년 유가는 93.17달러로 전망
- 2013년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89만b/d 증가한 8,993만b/d가 될 전망, 2014년에는 약 121만b/d 증가한 9,114만b/d가 될 전망
- 2013년 세계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57만b/d 증가한

8,972만b/d가 될 전망

- 비OPEC 국가들은 북미 타이트 오일, 오일샌드 등 비전통 석유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3년 원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93만b/d가 증가한 2,349만b/d가 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OPEC 생산량이 전년대비 53만b/d 감소하겠으나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 및 원유공급 차질 발생 대응을 위해 여전히 3,500만b/d를 상회할 전망
- EIA 등 대부분의 주요 유가전망 기관들은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비전통 석유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유가 약세를 예상하며 2013년 평균유가를 전년대비 낮게 전망
- 다만 북미 내륙지방의 원유 생산지로부터 정유설비가 밀집되어 있는 멕시코만 지역으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들이 다수 완공될 예정에 있어 향후 WTI유와 브렌트유간의 가격 격차가 축소될 전망

<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

(단위: \$/bbl)

구 분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2년 평균	2013년					2014년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유 가	CERA (13.5.3.)	Dubai	109.05	108.2	98.63	96.00	92.43	98.81	90.47	89.12	87.85	86.87	88.58
		Brent	111.67	112.6	101.6	101.8	98.00	103.5	96.00	94.80	93.60	92.40	94.20
		WTI	94.13	94.29	90.63	91.35	91.81	92.02	90.66	89.77	88.33	87.52	89.07
	EIA (13.5.7.)	WTI	94.12	94.34	92.34	93.00	93.00	93.17	93.00	92.00	92.00	92.00	92.25
	PIRA (13.4.26.)	Brent	111.55	112.6	104.8	111.7	114.0	110.8	-	-	-	-	-
		WTI	94.15	94.30	95.85	105.0	108.2	100.8	-	-	-	-	-

주1)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 (천연가스) EIA는 2012년 미국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을 2.83달러, 2013년은 3.91달러로 전망

- 2013년 미국 천연가스 소비가 전년대비 4.9억cf²/d(0.71%) 증가한 702억cf/d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2) cf(cubic feet, 입방피트)는 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Mc³는 석유 0.178205 배럴에 해당

- 발전용 수요가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하락하여 전년대비 21.8억 cf/d(8.7%) 감소한 228억cf/d가 될 전망
- 한편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수요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여 전체 천연가스 수요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13년 미국 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대비 7.2억cf/d 증가한 699억cf/d 수준이 될 전망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³⁾

1. 업스트림(Upstream)⁴⁾ 산업

가. MENA(중동/북아프리카)

□ 일본 JBIC은 UAE 국영기업 ADNOC와 추가 차관 제공 계약 체결 (2월 12일)

- 일본은 UAE에서 26만b/d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일본의 연간 해외 생산량 64만b/d의 41%에 해당
- JBIC은 일본에 대한 장기 원유공급을 조건으로 국영기업 ADNOC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
-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은 2018년 기존 아부다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약갱신 등을 감안하여 우호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석유기업 Inpex의 자회사 JODCO는 아부다비 Umm Shaif, Lower Zakum 유전(지분 생산량 22.5만 b/d)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계약 만료 예정

- JBIC은 이미 2005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억 달러의 차관을 동사에 제공한 바 있음

3) www.petronet.co.kr 참고

4) 석유·가스산업은 크게 ① 유전 탐사·개발·생산 ② 원유 수송 ③ 원유 정제 ④ 석유제품 수송 및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① 부문을 업스트림(Upstream), ② 부문을 미드스트림(Midstream), ③ 이후 부문을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

- 한편 JOGMEC은 ADNOC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영국 Stering Energy, 이라크 쿠르드 Sangaw North 광구에서 철수 의사 표명(2월4일)
 - Stering Energy는 추정 매장량이 너무 적다는 판단 하에 1월 29일 쿠르드 자치정부에 생산물분배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현재 철수 준비 중
 - Stering은 2007년 11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분은 Stering(운영권자) 53.33%, Addax Petroleum 26.67%, 쿠르드 자치정부 20% 보유

나. 유럽

- 영국, 자국의 셰일가스 개발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정책 도입(3월 21일)
 - 영국은 자국 셰일가스 산업 초기투자를 장려하고 비전통자원 시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할 방침
 -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석유·가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탐사비 법인세액공제 제도(RFES : ring-fence expenditure supplement)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시행할 전망
 - 2006년 도입된 RFES는 소득 대비 탐사·개발비용 지출이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 또한 탐사비용이 소득보다 많을 경우 손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6년까지 이월해 향후지출내역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
 - 이외에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인 환경이슈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술 가이드라인을 2013년 7월까지 제정하여,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할 예정
- 프랑스 Total, 영국 셰일가스 개발 적극 추진(2월 15일)
 - 프랑스 정부가 자국 셰일가스 개발을 금지함에 따라 Total은 영국 등 해외 셰일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영국은 2011년 5월 수압파쇄 시추를 진행하던 중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가 수압파쇄에 의한 세일가스 개발을 전면금지했으나, 2012년 12월 수압파쇄 시추법 재개 허용
- 이에 Total은 영국 세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

□ 영국 세제개편으로 해상부문 투자 30년來 최고치 기록(2월 26일)

- 영국 정부는 지난 4년간 개발이 어려운 프로젝트에 세제혜택을 제공한 결과 2012년 해상부문 투자액이 114억 파운드(173억 달러)을 기록하여 전년(85억 파운드) 대비 34% 증가
- 2013년에도 해상부문 투자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신규 유전개발, 기존유전 확대, 석유시설 정비 및 광구수명연장 사업 등에 16억 파운드가 투자될 예정
- 한편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노후 해양시설 철거 시 해당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북해 성숙유전 내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2012년 영국 석유생산량이 전년대비 14% 하락한 92만b/d로 30년來 최저치 기록(3월 1일)

- 생산량 감소는 북해 생산량 감소 및 일부 유전 생산중단에 기인
- 최근 수 년 간 북해 성숙유전 생산량은 연평균 6%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1년에는 일부 유전 생산중단 및 가스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17% 이상 급감
- 또한 영국 최대 생산유전인 Buzzard 유전(생산량 22만 b/d)이 정기 유지보수로 생산을 중단하고, Elgin-Franklin 유전은 2012년 3월 가스누출 사태로 가동을 중단하여 동 유전 가스 생산량이 전년대비 14.1% 감소
- 영국은 2005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2년 석유 및 천연가스액 수입량은 5,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8.9% 증가

다. 아프리카

□ 탄자니아, 케냐 등 최근 대형 가스전이 발견된 동아프리카 국가들, 국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상류부문 계약 조건 강화 움직임 (1월 28일)

- 탄자니아 정부는 현재까지 체결한 26건의 생산물분배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
 - 로열티 및 서명 보너스 인상을 포함한 가스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 광구분양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케냐는 신규 라이선스에 대한 서명 보너스를 3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며, 해외기업 보유지분 중 35%를 자국기업에 양도하도록 조치할 예정
- 우간다는 석유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석유부 장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석유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부 장관이 광구 분양 및 계약 철회, 양도 등에 대해 단독 결정 권한 보유
- 이러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계약조건 변경 조치로 인해 해당 국가 석유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

□ Statoil, 알제리 가스전 인질극 사태 이후 북아프리카 사업계획 재조정 계획(1월 31일)

- Statoil은 운영권을 보유중인 알제리 In Amenas 가스전에서 발생한 인질극 사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알제리 사업 철수 여부 및 인근 리비아 사업의 향방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동사는 알제리 내 In Amenas 가스전, Salah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작고, 추후 확장 가능성도 낮아 알제리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음

라. 미주

- Platts는 멕시코만 심해개발, 타이트 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시추 회사 등 대형 서비스 업체들이 큰 수익을 향유하는 한편, 2013년 미국 석유 가격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원유 유출사고 이후 위축되었던 멕시코만 심해 석유 개발이 최근 정상화됨에 따라 신규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
 - 멕시코만 심해 부유식 시추선 수는 연초 35척 수준에서 연말까지 4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세계 심해 시추 산업의 회복으로 시추회사들이 큰 수익 향유
 - Bakken, Eagle Ford, Permian 등 타이트오일 지역 개발 활기, Utica 셰일층은 개발 불확실성 존재
 - Bakken, Eagle Ford, Permian 등 주요 타이트오일 생산 지역의 생산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
 - 다만 Utica 셰일층의 경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Chesapeake가 동 지역의 타이트오일 유망성을 기존 대비 더 낮게 전망하는 등 개발 리스크 존재
 - 셰일 등 비전통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메이저, 대형 독립계 회사들이 안정적인 대형 서비스 업체들을 선호하면서 대형 서비스 업체의 시장 점유율 상승 전망
 - 시추정이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 발전에 따른 시추 효율성 개선으로, 미국 육상 리그 수는 2~3% 감소 전망
 - 한편 시추 효율성 개선으로 2013년 상반기 서비스(리그, 설비 등) 비용은 2012년 하반기 대비 10~15% 하락 전망
 - 2012년 NYMEX 유가는 배럴당 80~90달러대로 2013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종전 전망에서는 2013년 유가가 원유공급 증가,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보았으나 송유관 확장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어 종전 전망 대비 상향 조정

□ EIA는 미국 타이트 오일 생산 증가로 2014년 미국 원유 생산량이 800만 b/d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1월 9일)

- 미국 타이트 오일이 미국 원유 생산 증가를 견인하여 2014년 미국 원유 생산량이 1988년 이후 최고치인 792만 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원유 생산량은 1970년 960만 b/d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88년 800만 b/d, 2008년 500만 b/d로 감소
 - 최근 타이트오일 생산증가로 전체 원유 생산량도 증가세로 전환
- 또한 EIA 1월 보고서에서 2013년 원유 생산량을 기존 전망치보다 27만 b/d 증가한 732만 b/d로 전망
 - 이는 전년도 생산량(643만 b/d) 대비 89만 b/d 증가한 수치로 실현화될 경우 사상 최대 증가폭에 해당함
 - 원유 생산량 급증으로 미국 원유 순수입량이 2012년 846만 b/d, 2013년 758만 b/d, 2014년 706만 b/d 등 향후 지속 감소할 전망
- 이에 따라 미국 원유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미국 Seaway 송유관 확장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Brent유-WTI 유간 가격 격차 축소 예상(1월 4일)

- Seaway 송유관 수송능력 확장으로 수송량이 1월 11일부터 기존 15만 b/d에서 40만 b/d로 증가할 경우, 올 여름 Brent유-WTI유 간 스프레드가 배럴 당 15달러까지 축소될 가능성 제기(1월 3일 기준 두 유종 간 스프레드는 19.15달러)
- 향후 Seaway 송유관이 추가로 확장되고 Keystone XL 송유관의 운영이 개시되면 Brent-WTI 간 가격격차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임
 - Seaway 송유관의 수송능력은 2014년 총 85만 b/d까지 확장될 예정이며, TransCanada는 2013년 말 경 Keystone XL 송유관 남부구간(쿠싱~멕시코만, 수송능력 59.1만 b/d)의 송유관을 운영할 계획

- EIA도 신규 송유관 프로젝트로 WTI유의 멕시코만 수송 증가로 인해 올해 Brent-WTI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하여 1분기 \$19/B, 2분기 \$17.33/B, 3분기 \$15.16, 4분기 \$11/B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4년에는 스프레드가 더욱 좁혀져 평균 \$8.25/B를 기록할 전망

- 한편 Seaway 송유관의 확장 운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

□ 미국 타이트 오일 생산 증가와 더불어 Seaway 송유관 확장 운영 등에 따라 내륙 지방의 저렴한 경질유가 정제설비가 확충된 멕시코 만으로의 운송이 확대되면서 동부연안 정제 마진 개선(1월 14일)

- 타이트 오일 생산 증가 및 송유관 확장으로 인해 일부 정제설비가 폐쇄 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던 동부연안 정제설비의 마진이 회복될 전망

- 또한 현재 미국의 원유 공급과잉 현상이 정제제품 공급과잉으로 전환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미국의 제품 수출 시설이 증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과잉으로 정제 마진이 하락하고 결국 정제설비들이 가동률을 낮춰야 할 가능성도 존재

※ EIA에 의하면, 지난 6주간 걸프연안 정제시설의 평균 정제가동률은 95%

□ 미국, LNG 수출 허용과 관련한 찬반 입장 대립(1월 11일)

- 미국 제조업 단체(America's Energy Advantage, AEA)와 가스 유틸리티 협회(American Public Gas Association, APGA)가 미국 LNG 수출을 반대하는 로비 단체를 결성하는 등 LNG 수출 반대 여론 확산

- AEA는 LNG 수출이 허용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이유 등으로 LNG 수출 제한 주장

· AEA의 회원사인 Dow Chemical은 LNG 수출에 의한 가격상승 리스크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

- 한편 미국석유협회(API), 천연가스공급협회(NGSA), 미 상공회의소 등은 LNG 수출을 지지하는 입장

□ 미국 Eagle Ford 지역의 콘덴세이트⁵⁾, 캐나다 수출 증가(1월 24일)

- 미 멕시코만 지역에서 Eagle Ford 콘덴세이트 공급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저평가되면서, 최근 콘덴세이트 수요가 늘고 있는 캐나다 시장진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 콘덴세이트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멕시코만 지역은 정제시설 고도화 비율이 높아 경질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최근 에탄, 프로판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석유화학 원료로서의 콘덴세이트 수요도 감소하면서 현재 멕시코만 지역에서는 경질유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남
- 한편 캐나다 희석용 경질유(Diluent)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Canadian Energy Research Institute에 의하면 2010년 20만~25만 b/d였던 캐나다 내 희석용 경질유 수요가 2020년에는 60만 b/d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콘덴세이트 가격 격차 확대
 - 1월 22일 미국 Eagle Ford 콘덴세이트 가격은 \$91.75/B, 같은 날 캐나다 앨버타주 Edmonton 콘덴세이트 가격은 \$105.94/B
- 철도를 통해 미 멕시코만 지역의 콘덴세이트를 캐나다로 수송하는 사례도 증가
- 오일샌드 개발업체인 Southern Pacific Resource Corporation은 희석용 콘덴세이트를 멕시코만에서 캐나다 앨버타주까지 철도를 통해 수송할 계획

□ Marcellus 셰일가스 개발업체, 낮은 가스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3월 20일)

- 미국의 낮은 가스가격에도 불구하고 Range Resources, EQT 등 Marcellus 셰일가스 개발 업체들은 고수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고온으로 지하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탄화수소가 지상에 올라와 응축되어 액체상으로 변환된 것으로 콘덴세이트 유 또는 콘덴세이트,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이라고 함

- Range Resources는 가스의 청정성, 석유화학기업들이 원료로서 납사 대비 에탄 가스 선호, LNG 수출 전망 등을 근거로 가스개발 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
- EQT는 Marcellus 셰일층에 확인매장량 6 Tcf의 가스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헨리허브 가격 \$3.91/MMBtu 기준 수익률 53% 기록
- 두 기업 모두 Marcellus 셰일층 중 펜실베이니아주 남서쪽지역 개발에 집중

마. 아시아태평양

□ 일본 JOGMEC, 세계 최초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프로젝트 착수(2월 6일)

- JOGMEC이 일본 내 막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성을 실험하기 위해 시추선 파견
- 사전 작업이 끝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용해하고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
- 동 프로젝트는 ANRE(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가 감독하며 추후 실험 결과 분석과 상업적 생산을 위한 기술 준비 측정도 담당할 예정
- Wood Mackenzie는 일본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이 성공할 경우 향후 일본의 LNG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중국, 해외자산 매입으로 2015년 해외 원유 생산량이 300만 b/d에 이를 전망(2월 27일)

-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인수한 결과 중국 석유기업의 해외 생산량이 110만 b/d에서 170만 b/d로 증대
- Sinopec은 지난 2월 5일에도 미국 Chesapeake Energy로부터 10.2억 달러에 85만 에이커 규모의 오클라호마 Mississippi Lime 자산 지분 50%를 인수한 바 있음

※ Sinopec의 2011년 해외자산 생산량은 46만 b/d임

□ 일본은 고유가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목적으로 해외 상류부문 자산 확대를 위한 재정지출을 증가할 계획(2월 22일)

- 일본 내각은 2013년 국가 전체 예산 92조 엔 중 980억 엔(10억 달러)을 JOGMEC이 상류자산 인수에 사용하도록 승인
 -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전인 2007~2011년 JOGMEC의 관련 예산 규모는 연간 100억 엔 수준에 불과
 - JOGMEC은 일본기업들이 가스 탐사사업과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에 직접투자하거나 대출지원에 510억 엔을 배정
- 한편 JOGMEC을 통해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1조엔 규모의 대출 계획 발표
 - 북미지역을 비롯한 해외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LNG 수입비용 절감 목적
- 일본 국영 수출 보험기구인 NEXI는 자국 내 수요 급락으로 미국에서의 수입이 동결될 경우에 대비한 보험 제공 검토
- 자국 내 석유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바. 러시아/중앙아시아

□ Shell,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Yuzivska 육상 셰일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50년) 체결(1월 25일)

- Shell이 운영권자로서 지분 50%를 보유하고 합작기업인 Nadra Yuzivska(국영 Nadra Ukrainy 90%, 민간 SPK-Geoservice 10%)가 나머지 50% 지분 보유
 - 초기 탐사기간(5년)에 탄성과 탐사자료 취득 및 탐사정 15공 시추가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투자비는 4.1억 달러로 예상
 - Yuzivska 광구(면적 7,886km²)는 탐사 자원량이 4.05Tcm으로 추산
- Yuzivska는 향후 15년 내 최대 연간 20Bcm을 생산하여 러시아에

대한 가스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

-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산 가스에 백만Btu당 12.46달러를 지불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표명

□ 러시아 Rosneft, 중국 국영기업과 상류부문 협력 강화(2월 19일)

- Rosneft는 2009년 체결한 loan-for-oil 계약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중국에 30만 b/d의 원유를 공급 중에 있음
- 양측 간 발생한 원유 공급대금분쟁으로 인해 작년 중국 측에 배럴당 1.5불을 할인해 주기로 함
-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장기 원유공급계약 체결에 이어 중국 국영 기업을 자국 해상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시킴으로써 양국 에너지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
- 2월 중순 Rosneft CEO가 중국을 방문하여 CNPC, Sinopec, CNOOC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개발 논의
- CNPC와는 러시아 해상에서의 공동작업에 대한 MOU 체결
- Sinopec과는 대중국 원유공급 가능성에 관한 MOU와 러시아 해상에서의 공동작업에 대한 MOU 체결
- CNOOC와는 워킹그룹을 설립해 러시아 해상에서의 공동작업 가능성을 연구하기로 함

□ 러시아는 2014년부터 셰일오일과 해상광구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4월 3일)

- 셰일오일은 암석 투수도에 따라 광물생산세를 50~100% 감면하게 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해상광구에는 특별 세제(원유수출세 면제, 광물생산세 감면)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법안 준비가 완료된 상태
- 작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수압파쇄법 등 비전통 생산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감면 패키지(Tax Relief Package)를 승인하고 대

책마련을 지시함

- 러시아는 금번 세계감면을 통해 비전통 원유 생산량이 2백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총 원유 생산량을 1,000만 b/d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

□ Rosneft, TNK-BP 인수 완료로 상장 기업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기업으로 부상(3월 21일)

- Rosneft는 TNK-BP 인수 후 일산 470만 boe 규모로, ExxonMobil(2012년 424만 boe/d 생산)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기업이 됨
 - 금번 인수는 당초 2분기 완료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빠른 3월 21일 인수 완료
 - 대규모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로 인해 양사의 완전한 통합에는 향후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
- BP는 그동안 TNK-BP를 통해 러시아 내 최대 외국인 투자자였으며, 추후에는 Rosneft 보유지분을 통해 러시아 사업 추진 계획
 - BP는 총 19.75%의 Rosneft 지분을 보유하여, 러시아정부에 이은 Rosneft 2대 주주
 - 서시베리아와 볼가-우랄 지역 성숙유전에 대한 회수증진, 동시베리아와 야말반도 신규유전의 탐사·생산 및 셰일오일과 타이트오일 개발 등을 수행할 전망
- TNK-BP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되며 Rosneft의 수익이 60~70%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동일 지역에 소재한 양사 자산의 공동 개발을 통한 비용 최적화 및 최적 자산에 대한 집중을 통해 시너지 창출 가능

2. M&A 거래

□ 일본 Japex, 미국 텍사스 주 Eagle Ford 자산 두 곳의 지분 인수 (1월 17일)

- Japex는 Eagle Ford 셰일 자산 한 곳(200에이커)의 지분을 개인 토지소유자로부터 50% 인수하였으며, 다른 한 곳(640에이커)의 지분은 Marathon Oil로부터 5% 인수
 - 동사는 이미 작년 8월 Marathon Oil이 운영하는 Eagle Ford 셰일 자산 (26,500에이커) 지분 5%를 취득하였고, 금번에 취득한 자산을 Marathon Oil과 공동 개발할 예정
- 동사는 Eagle Ford 개발을 통해 얻게 될 기술 및 노하우가 일본 아키타현 Onnagawa 구조의 타이트 오일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동사는 아키타현의 석유 가채매장량을 1억 배럴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아키타현 소재 생산유전(Ayukawa, Sarukawa 등) 중 한 곳에서 일본 최초의 타이트 오일 탐사정 시추를 고려 중

□ 미국 Pioneer Natural Resources, 텍사스 서부 Wolfcamp 셰일 자산의 지분 40%를 17억 달러에 중국 Sinochem Petroleum에 매각하기로 결정(1월 31일)

- 중국 Sinochem 그룹의 미국내 자회사인 Sinochem Petroleum은 금번 거래를 통해 Wolfcamp 셰일지역 남부 82,800에이커(총면적의 40%) 취득
 - 2012년 Wolfcamp 평균 생산량은 2천b/d, 연말 생산량은 약 5천b/d
- 금번 거래가격(약 \$20,531/에이커)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
 - UBS는 \$20,500/에이커, Wells Fargo에서는 \$12,000/에이커, 월가(Wall Street)에서는 적정가가 \$10,000~15,000/에이커라는 의견이 지배적

□ Chevron, 모로코 해상 광구 지분 인수를 통해 메이저 기업 중 최초)로 모로코 상류부문 진출(2월 1일)

- Chevron은 모로코 해상 세 개 광구(Cap Rhir Deep, Cap Cantin Deep and Cap Walidia Deep)에 대한 운영권 지분 75% 인수
 - 잔여 지분 25%는 모로코 국영기업 ONHYM(Office National des Hydrocarbures et des Mines)이 보유
- Chevron은 세 개 광구에 대한 탄성과 탐사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

□ 미국 Chesapeake, Sinopec에 Mississippi Lime 자산 지분 5%를 10억 달러에 매각(2월 26일)

- Sinopec은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Chesapeake 미시시피 라임 자산(오클라호마 북부와 캔사스 일부)의 85만 에이커 취득예정
 - Chesapeake는 미시시피 라임자산의 2012년 4분기 평균 생산량이 약 3.4만 boe/d이고 2012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은 1.4억 boe라고 밝힘
 - 운영권은 Chesapeake가 계속 보유하며 탐사개발비용은 양사가 지분비대로 분담

□ Chevron, 호주 Beach Energy의 육상 셰일가스 프로젝트 지분을 3.49억 달러에 매입(2월 26일)

- 매입 대상은 호주 육상 최대의 유·가스 생산지역인 Cooper분지에 위치하는 내 81만 에이커의 PEL 218, ATP 855 두 개 광구
 - Chevron은 금번 계약이 호주 내 개발 중인 LNG 프로젝트의 선구적인 사업으로 이를 통해 비전통 가스에 대한 기술 발전 기대

□ 러시아 Gazprom Neft, 이라크 북부 쿠르드 Halabja 광구 지분 80% 인수(2월 26일)

- Gazprom Neft는 금번 계약으로, 원시매장량이 0.9억~1억 톤으로 추정되는 Halabja 광구의 운영권 획득, 잔여 지분 20%는 쿠르드자치정부가 소유
 - 동사는 동 광구에 대해 7년간 탐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기한연장을

6) Chevron 진출 이전에는 스페인 Repsol, 미 Andarko가 모로코 육상 광구 개발에 참여해 오고 있음

통해 25년간 채굴권 획득 가능

- Gazprom Neft는 이라크 중앙정부 석유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이라크 정부는 동사의 쿠르드 진출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
- 이라크 중앙정부는 연방석유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쿠르드자치정부가 외국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계약 체결 기업은 중앙정부의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운영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ertamina, ExxonMobil이 보유한 이라크 West Qurna 1 유전의 지분 일부 인수 추진(3월14일)

- ExxonMobil은 이라크 West Qurna 1 유전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Pertamina는 이 중 10~20%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West Qurna 1 유전은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매장량 90억 배럴 규모의 유전으로, ExxonMobil 60%, Shell 15%, 이라크 국영 석유탐사기업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0년부터 20년간
- 2020년까지 최대 생산량인 232.5만 b/d를 달성할 계획이며, 생산량이 26만 b/d를 초과할 경우 배럴당 1.9 달러의 개발수수료 지급⁷⁾
- 금번 인수 추진은 이라크 중앙정부가 ExxonMobil을 비난한 후에 이루어져 업계 이목이 집중됨
- 이라크 중앙정부는 ExxonMobil이 쿠르드자치정부와 체결한 6건의 계약과 관련해, 쿠르드 혹은 중앙정부와의 사업 중 택일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7) 현재 생산수준은 46만 b/d

III. 주요 이슈 - 아시아 기업의 업스트림 부문 M&A 동향⁸⁾

□ 2012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석유기업들의 업스트림 부문 M&A 투자 매우 활발히 전개

- Daelogic에 따르면 2012년 아태 지역 기업의 M&A 건수는 전년 419건보다 낮은 400건이나 거래액은 약 25% 증가한 854억 달러 기록
-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은 307억 달러 이상의 M&A 계약 체결, 이는 지난 2010년 역대 최고치(316억 달러) 이래로 두 번째로 높은 규모
 - PLS Derrick M&A Database에 따르면, 2012년 중국 3대 국영기업(PetroChina, Sinopec, CNOOC)은 전 세계 상류부문 M&A 투자비(2,540억 달러)의 12%를 차지
 - 2013년은 CNOOC의 캐나다 독립계 Nexen 인수(179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87% 증가한 575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중국 외 아시아 기업들도 총 290억 달러 상당의 M&A 계약 체결
 - 태국 국영기업 PTTEP는 아프리카에 상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Cove Energy를 19억 달러에 인수
 - 인도 국영기업 ONGC는 아제르바이잔 ACG 지분의 2.72%, 카자흐스탄 Kashagan 지분의 8.4%를 매입할 계획
 - 일본 Inpex, Mitsui, Mitsubishi 등도 다수의 LNG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참여

□ 2012년 아시아 기업들의 M&A는 주로 LNG, 심해 프로젝트 중심

- 일본, 중국 등 주요 LNG 수입국 기업들은 LNG 프로젝트 지분참여를 통해 장기 LNG 도입계약 체결
 - Inpex(Prelude 프로젝트), Mitsubishi(Wheatstone), Sinopec(APLNG), CNOOC(Queensland Curtis), Mitsui, Mitsubishi, PetroChina(Browse)가 호주 LNG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

8) www.petronet.co.kr 참고

- PetrtoChina, 말레이시아 Petronas, Mitsubishi는 캐나다 가스개발 초기 단계에 참여
- 한편 메이저 기업들이 신규 탐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분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심해 프로젝트에 대한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 증가

2012년 아시아 기업의 업스트림 부문 M&A 투자규모

기업	M&A 건수	M&A 규모 (백만 달러)
CNOOC	4	19,830
Sinopec	4	6,297
ONGC	3	6,000
Petronas	10	5,845
Mitsubishi	4	5,178
CNPC/PetroChina	10	4,586
PTTEP	2	1,756
Inpex	7	1,511
CPC	1	414
Mitsui	3	280
OIL	2	41
IOC	2	41
Gail	1	-

*출처: PLS Derrick M&A Database, Petronet 재인용

☐ 아시아 기업들이 M&A 시장에 적극 가세함에 따라 기업간 M&A 경쟁 격화

- CNPC는 수년간 카자흐스탄 Kashagan 프로젝트를 참여를 타진해 왔으나 작년 ONGC가 50억 달러에 ConocoPhillips가 보유한 지분(8.4%) 매입 결정
- PTTEP와 Shell은 Cove Energy 인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PTTEP가 Shell보다 높은 입찰가(19억 달러)를 제시하여 인수에 성공

☐ 2013년에도 아시아 기업들은 자국내 생산자산 노후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자산 M&A 투자에 적극 나설 전망

- 중국은 2012년 해외 M&A 시장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에도 아프리카, 남미에 비해 정치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미지역에서 자산매입을 지속할 전망
 - 미래에셋은 작년 12월 보고서에서 가스가격 하락으로 북미지역 자산 가치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져 2013년은 중국이 북미 지역 자산을 매입하는 최적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
-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Petronas는 자국 내 성숙 유전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자산 확보를 위해 2012~2017년 에너지 자산 매입에 1,000억 달러의 예산 책정
 - Petronas는 2012년 Progress Energy를 50억 달러에 매입해 생산제품을 다각화하는 한편, 북미지역에서 아시아로 수출하는 LNG 판매자로서의 입지 구축
 - 자산 매입을 위한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자국 내 정책자금 이용도 가능
 - 최근 북미 지역 이외에 영국 Wales 지역의 Dragon LNG Terminal과 모잠비크 해상광구의 탐사 사업 M&A에도 관심
- 인도네시아는 전 OPEC 회원국이나 최근 급격하게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최근 해외자산 M&A에 적극적
 - 인도네시아는 2013년 예정된 생산량 53만b/d을 M&A를 통해 2014년 54만 b/d, 2015년 75만 b/d까지 올릴 계획
 - 국영기업 Pertamina 는 작년 6월 미국 Harvest Natural Resources로부터 Petrodelta⁹⁾ 지분 32%를 인수한데 이어 카자흐스탄과 이라크 자산 인수도 검토 중이며 올해 M&A에 18.8억 달러의 예산 책정
- 한편 베트남 국영기업 PetroVietnam는 새로운 해외자산 M&A보다는 2012년에 기확보한 자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방침
 - 동사는 작년 9월 ConocoPhillips로부터 페루 Maranon 분지의 39광구 지분 35%, 10월 Perenco로부터 페루 67광구의 지분 52.6%를 인수한 바 있음

(끝)

9) Petrodelta는 베네수엘라의 6개 광구를 운영하며 38천 b/d를 생산 중